

중국어 습득모형에 관한 소고

- 학습자의 내적요인을 중심으로

임재민*

<目 次>

1. 서론
2. 타문화요소 수용과정
3. 중국어지식 학습과정
4. 중국문화 내재화과정
5. 중국어 습득모형
6. 결론

1. 서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체계이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유방식 그리고 문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언어, 사유, 문화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동일한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의 문화사유(文化思維)¹⁾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사용되는 언어²⁾ 역시 특별히 의식하거나 지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고 습득된다. 이에 반해 제2언어는 학습자가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xiao365@hanmail.net

1) 'Cultural Thinking'은 학문분야나 연구자에 따라 '문화적 사고', '문화사고', '문화사상'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문화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로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으며 의식적으로 행하는 정신적 과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과 지적 작용을 일컫는 '사유(思維)'에 초점을 맞추고자 '문화사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여기서는 모국어를 지칭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모국어와 달라서 반드시 관련 언어지식의 학습과 타문화사유³⁾ 내재화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정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원어민화자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제2언어를 접하기 전 또는 학습과정 중 형성된 선입견, 오해, 편견 등 심리적 문제와 모국어 문화사유의 영향으로 학습자는 타문화사유를 쉽게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가 제2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발화하는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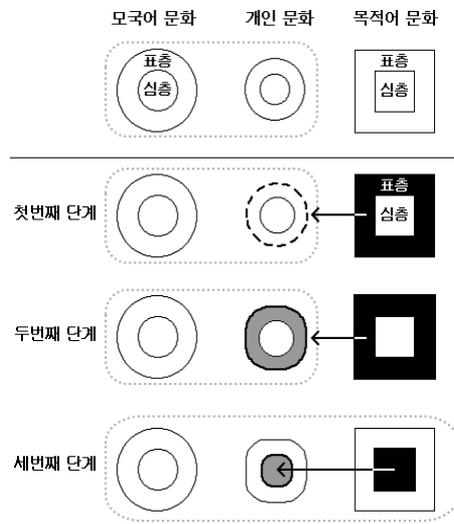
중국어는 우리들에게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목적어)이다. 상기한 것처럼 학습자는 중국어 언어지식과 더불어 타문화사유를 내재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과 습득⁴⁾이라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거쳐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어 학습자는 의식적으로 중국어지식을 학습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학습과정 중 접하게 되는 중국적 문화사유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이미 내재된 모국어 문화사유와 자연스럽게 융합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한 중국어를 습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먼저 언어지식과 문화사유 개념을 타문화요소 수용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중국어지식 학습과정과 중국문화 내재화과정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찰한 후 학습자의 내적요인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습득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타문화요소 수용과정

-
- 3) 문화사유는 모국어 문화사유, 목적어 문화사유 등 개별적인 개념이며 타문화사유는 모국어 문화사유를 제외한 제2언어 학습자가 학습하고 습득해야 할 목적어 문화사유를 일컫는다. 여기서는 목적어 관련 언어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습관, 사고방식, 행동패턴 등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유하고 독특한 생활양식과 정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4) Krashen(1981)에 따르면 언어학습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언어규칙을 익히는 과정이고 언어 습득은 마치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이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언어규칙을 의식하면서 학습하는 것은 습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학습과 습득을 구분하고 있다. 본고 역시 학습과 습득을 개념적으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이 둘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성을 갖고 있으며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순환되는 것으로 여긴다.
- 5)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성인의 경우 중국어는 제1언어가 아닌 제2언어(L2)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2언어 습득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와 관련된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하려고 한다. 학습자가 타문화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타문화요소 수용모형⁶⁾

타문화(목적어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개인문화)은 〈그림1〉의 제일 윗부분에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모국어 문화)과 동일한 문화사유(모국어 문화사유)를 공유하고 있다. 즉 표층적 문화요소(언어지식)든 심층적 문화요소(문화사유)⁷⁾든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범주 안에 속

6) Libben과 Lindner(1996)는 제2문화 습득(SCA)와 제2언어 습득(SLA) 관계성에 대해 논하였다. 본고는 이 두가지 개념을 분리하여 타문화요소 수용과정에 적용하였다. 또한 潘玉淑(2005)의 논문을 참고하여 타문화요소 수용과정을 3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모국어 문화는 원형으로 목적어 문화는 사각형으로 형상화하였고 개인문화는 목적어를 학습하기 전에는 모국어 문화와 동일하므로 작은 원형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타문화 수용과정 단계별로 각기 다른 타문화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7) 언어, 사유, 문화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언어가 사유를 결정한다는 Sapir-Whorf가설이 있는 반

해 있는 반면 타문화는 이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개인문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타문화요소를 수용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학습자는 제2언어를 처음 접하게 되고 관련 언어지식을 학습하지만 그 언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으므로 개인문화의 표층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표층적 문화요소인 언어와 일부 생활방식 등을 이해하고 흡수하여 제2언어를 적절히 구사하게 된다. 그러나 타문화의 심층적 문화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본능적으로 심리적 방어기제를 작동하게 되고 문화적 관념이나 사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종종 화용실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심층적 문화요소인 문화사유는 여전히 모국어 문화사유의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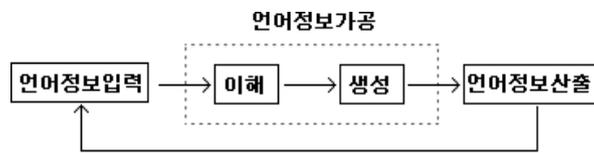
마지막 단계는 학습자가 타문화의 심층적 문화요소인 가치관, 사상 등을 수용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학습자는 원어민과 동일한 문화사유를 공유하게 되고 완전히 타문화사유를 흡수함으로써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적, 문화적 충돌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원어민화자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모국어 문화사유의 파괴나 소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받아들인 가치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관점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면에 Vygotsky는 사유가 언어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Oswald는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언어, 사유,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지만 서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은 찾기가 어렵다. 제2언어 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목적어를 기계적으로 외었다면 학습자는 획득한 목적어의 언어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은 가능하겠지만 문화사유적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고 목적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학습자가 제2언어를 완전히 습득하였다면 모국어 영향으로 인한 발화습관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학습자는 타문화사유를 완전히 수용했으므로 사유방식의 차이로 인한 화용실수현상 역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butalebi (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2언어가 유창한 사람이 제2언어를 이해하고 발화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모국어와 동일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국어를 사용할 때보다 활성화되는 영역이 적거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고는 문화요소를 표층적인 것과 심층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어떤 뜻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를 표층적 문화요소로 간주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언어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심층적 문화요소는 상징체계로서 문화사유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제2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제2언어의 표층적 문화요소인 언어지식을 획득하고 익히며 심층적 문화요소인 문화사유를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언어지식은 학습을 통해 획득할 수 있지만 원어민처럼 완전한 활용은 타문화사유를 수용하는 습득단계에서 가능하다.

3. 중국어지식 학습과정

최근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의 발달 그리고 두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관련 연구 결과는 제2언어 학습자들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외부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다시 가공하여 자신의 언어기제를 통해 산출되는 과정을 제2언어 정보처리과정으로 보고 있다. 정보처리이론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 2> 제2언어 정보처리과정

<그림2>에서 제2언어 학습자는 외부로부터 관련 정보⁸⁾가 입력되면 주의, 지각, 분석, 분류, 기억 등 일련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저장(기억)하거나 이미 저장된 지식과 비교와 정합(整合)을 통해 산출될 제2언어를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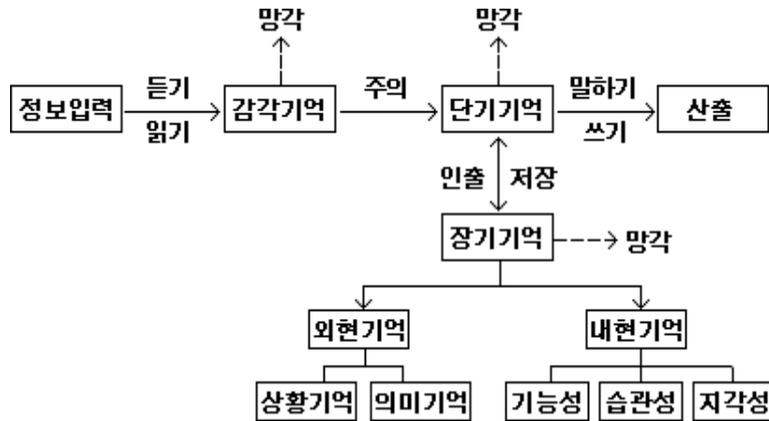
중국어 학습과정 역시 학습자가 처해있는 외부요인과 학습자의 내부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8) 여기서는 중국어에 관한 관찰, 수집, 소식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얻은 지식 또는 관련 자료 모두를 일컫는다.

중국어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중국어가 입력되는 사회적 환경과 언어적 환경을 들 수 있다.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중국어 학습환경은 학습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학습을 촉진한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내부요인으로는 중국어 학습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심리활동과 인지능력을 들 수 있으며 학습목표달성, 언어수행능력, 중국어지식 내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주의, 기억 등 인지적 활동과 그와 관련된 작용 등 학습자의 내부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어지식 학습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부요인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지식)를 기억한다는 것은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심리활동으로 중국어지식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먼저 외부에서 입력된 중국어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3>과 같다.



<그림 3> 기억모형9)

9) Tulving(1985), Graf와 Schachter(1985), Miyashita(2004) 등 심리학에서 논의한 것을 참고하여 제 2언어 습득과 중국어교육 관점에서 기억모형을 수정하였다.

중국어정보가 제일 먼저 감각기관(눈 또는 귀)을 통해 입력(聽或讀)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정보는 입력된 순서대로 서서히 소실되어 간다. 그러나 학습자가 주의(注意)¹⁰⁾한 정보는 단기기억을 거쳐 장기기억에 저장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단기기억 용량을 7 ± 2 ¹¹⁾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단기기억에 머무는 정보는 많지 않으며 단기기억에서도 일부 정보는 사라지고 학습자가 주의하고 집중한 정보 중 일부분만 장기기억으로 전이된다. 장기기억은 입력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감각기관을 통해 체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내현기억(절차적 기억)과 서술할 수 있는 외현기능(서술적 기억)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금세 소실되어서 더 이상 활성화가 되지 않으며 입력되는 중국어 정보에 대해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모든 정보가 지식이 되어 학습자의 장기기억에 저장되지 않는다.¹²⁾ 또한 입력된 정보가 비록 이해한 정보일지라도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지 못하면 단지 일회성에 머무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 시 학습자의 의식적인 주의를 입력된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와 더불어 주의단계는 중국어학습 중 관련 정보를 장기기억에 저장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입력되는 중국어 정보에 대한 집중정도는 중국어지식 획득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한편 장기기억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라도 이것 역시 자주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학습자의 기억력에 따라 일부는 소실되거나 망각되어진다. 따라서 외부에서 입력되는 중국어 정보의 이해정도와 학습자 개인의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간의 상호촉진능력 또한 중국어지식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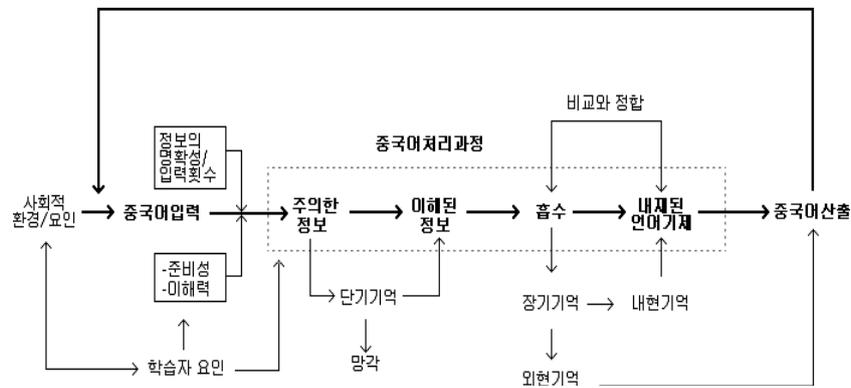
10) Schmidt(1990)의 주의가설(Noticing Hypothesis)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형식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시 주의를 기울였던 언어형식을 따른다고 한다. Robinson(1995) 역시 주의를 의식적인 지각으로 단기기억 내에서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야지만 장기기억으로 저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王甦, 汪安聖, 《認知心理學》(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137-139쪽.

12) Van Patten에 따르면 입력되는 모든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지 않고 이해하고 흡수하는 정보(지식)만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 활용된다. 鄒爲誠, 《語言輸入的機會條件》, 《外語界》第1期, 2000. 재인용.

2) 중국어지식 학습과정

학습자의 내부요인은 중국어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입력되는 정보에 대한 주의력과 그 정보를 흡수하여 장기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는 지식흡수력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지식 학습과정은 다음과 같이 형상화할 수 있다.



〈그림 4〉 중국어지식 학습모형¹³⁾

가장 이상적인 중국어지식 학습과정은 〈그림4〉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외부로부터 중국어가 입력되면 학습자에 의해 주의, 이해, 흡수, 기억 등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의사소통에 필요한 내용이 활성화되어 중국어로 산출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중국어지식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학습자가 실령 입력되는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일부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일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 정보는 학습자에게 흡수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중국어지

13) Gass(1988), Ellis(1994), Skehan(1998)의 제2언어 습득이론과 기억모형을 참고하여 중국어지식 학습과정을 도식화하였다.

식 학습과정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진행된다. 즉 <그림4>의 중국어처리 과정 중 존재하는 내부요인들과 사회적,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사회적 환경과 언어적 환경에 의해 중국어가 입력되면 학습자는 먼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때 일부 정보는 단기 기억 속에서 소실되고 소실되지 않은 정보는 계속해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습자가 이해한 정보는 이미 내재된 언어기제와 비교를 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일 경우 장기기억에 저장되거나 기존의 지식과 정합과정을 통해 중국어로 산출된다. 그러나 정합되지 못한 정보는 학습자가 되짚어서 다시 묻거나 반복 입력되지 않으면 단지 스쳐지나가듯 상황과 의미는 흔적만 남게 되고 결국에는 망각한다. 즉 학습자가 가진 기억력의 한계나 필요한 정보만 취사선택하려는 요인 때문에 이해한 모든 정보가 지식이 되어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거나 활성화 되지 않는다.

한편 학습자의 주의력과 언어처리 능력 등 개인적 차이는 존재하며 학습자의 개인적 역량은 중국어처리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입력되는 정보의 입력 횟수나 명확성 등 질적인 요소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진 중국어 교수-학습법 등 사회적 환경 역시 중국어 학습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자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관련 지식을 장기기억에 저장하여야 하며 이미 기억된 중국어지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중국문화 내재화과정

학습자는 중국어 학습 중 접하게 되는 타문화의 심층적 문화요소를 수용하면서 완전한 중국어 습득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이미 내재된 모국어 문화사유는 학습자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모국어 문화사유가 중국어 문화사유를 수용하고 흡수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심리경향

한국인 유학생 30명¹⁴⁾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와 중국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진행하였다. 연령은 22세에서 24세로 북경 소재 북경대학교과 북경어언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 본과 2학년과 3학년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2년 이상 생활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1) 중간문화현상¹⁵⁾

중간문화는 학습자의 모국어 문화와 구별되며 학습자가 제2언어를 학습하면서 생성되는 일종의 학습자 특유의 문화이다. 학습자가 산출한 결과물을 통해 중간문화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어 학습자가 중국어를 생성하고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말하기와 쓰기가 있으며 이 중 쓰기는 말하기에 비해 학습자가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본고는 중간문화현상의 파악하기위해 먼저 피실험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각 낱말을 띄어 써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만 중국어는 각 낱말을 붙여서 쓰는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각종 번호 표기법¹⁶⁾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접하지 않은 중국인은 자신이 살아온 생활방식대로 숫자와 이름을 모두 붙여서 쓸

14) 이하 한국인 유학생 30명을 '피실험자'로 줄여서 표기한다.

15) 王建勳(1995)은 의사소통시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중간문화현상은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습자의 심리적 과정을 모국어 문화의 전이, 목적어 이해를 위한 필터링 과정, 목적어 문화의 일반화와 문화적 적응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중에서 전이, 필터링, 일반화는 의사소통전략 및 학습전략과 연관이 있으며 학습자가 타문화를 습득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화적응과정은 제2언어와 그 문화를 습득하는 전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16) 한국에서 사용되는 각종 번호는 식별부호인 붙임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숫자는 고유의 기능과 개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붙임표로 서로 연결되면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대상)를 이룬다. 그러나 중국의 표기법에서는 우선전화번호의 지역번호 뒤에 붙임표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두 붙여서 표기한다.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를 접한 한국인은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의 한자 표기법으로 인지해서 적을 수도 있고 중국어로 인식해서 적을 수도 있다. 그것의 원인이 모국어의 영향이라면 중간문화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중국식으로 적었다면 본고는 중국식 문화사유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간문화현상을 일반적으로 간섭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표기법¹⁷⁾을 사용하는 숫자나 이름을 쓴다는 것은 모국어나 목적어로 인해 생성된 문화사유의 간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쓰기¹⁸⁾

구분	전화번호	빈도	이름	빈도
중국식	13501234567	12	김한국, 金韓國	7
			김_한국, 金韓國	5
한국식	135-0123-4567	3		3
기타	135_0123_4567	15	김한국, 金韓國	15

먼저 전화번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실험자 중 12명은 중국식 표기법대로 붙임표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한국식 쓰기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였지만 이 중 일부(5명)는 ‘김 한국’처럼 본인의 성과 이름을 띄어 적었고 한자로는 모두 붙여 적었다. 다른 피실험자 3명은 한국식으로 붙임표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적었고 성과 이름을 한글로 적을 때는 띄어 썼지만 한자는 모두 붙여 썼다. 그 외 15명은 전화번호 중간 중간에 공백을 두고 표기하였지만 성과 이름을 적을 때 한글과 한

17) 전 세계에 통용되는 기호체계는 존재한다. 원소기호, 수학기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라비아 숫자’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이고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숫자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읽는 방법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언어인 ‘수화’도 ‘세계공통수화’가 있는 반면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나라마다 달라 다른 나라 사람과 의사소통시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역시 세계공통기호이지만 나라마다 사용규칙이 다르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규칙, 조합 방법, 활용방법이 다르다면 그것 역시 그 나라 문화의 일부라고 사용하는 언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18) 본 조사에서는 모든 피실험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적게 하였으며 자신의 실제 이름을 한국어와 중국어(한자)로 적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임의의 이름과 번호로 대체하여 표기하였다. 공백은 밑줄 문자(underscore)로 표시하였다.

자 모두 공백없이 붙여 썼다.

상기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로 전화번호를 읽을 때 ‘-’은 ‘에’ 또는 ‘의’로 읽는데¹⁹⁾ ‘에’ 또는 ‘의’는 격조사로 조사를 사용한다는 것과 성과 이름은 일반적으로 붙여 쓰되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는 한국어 맞춤법²⁰⁾ 등 한국어 특징과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구문을 구분할 뿐 구문내부 요소들은 아주 긴밀하게 니열하는 중국어 특징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의 언어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부 특징들만 부분적으로 산출된 결과²¹⁾로 중간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대화를 구두어가 아닌 문자로 피실험자들에게 제시하였고 피실험자 스스로 상황과 의미 그리고 ‘B’의 심리상태를 유추하도록 하였다.

예문(1) A: 別都吃了啊! 給你哥留點兒吧!²²⁾

B: 他什麼時候能回來啊?

예문(1)에서 양국²³⁾ 피실험자는 모두 동일하게 엄마와 딸이 집에서 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추하였다. 그러나 ‘B’의 심리상태 유추에서 중국인들은 ‘B’가 ‘A’의 발화에 대해 조금 또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반어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피실험자들은 ‘B’의 구문에 사용된 의문대명사와 의문부호를 기준으로 ‘B’가 단순히 “그냥 물어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중국어의 의문문 문장과 반어법 문장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화용적으로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 의문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有疑而問)하는

19) 국립국어원 자료실,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2011년 10월31일 검색.

20) 상동.

21) 만약 긴 숫자를 띄어 쓴다는 것이 한국식 표기방법이라기 보다는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중국식 표기방법은 가독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22) 만약 예문을 구두어로 제시하였다면 억양을 통해 그 의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피실험자와 중국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언어습관과 인지경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문자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예문에 대한 번역 역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23) 동일한 예문을 15명의 중국인에게도 ‘B’의 심리상태를 유추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실험결과를 피실험자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반면 반어법은 반대되는 말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강화(無疑而問)하는데 있다. 이처럼 한국인 피실험자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맥락과 중국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맥락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것 역시 중간문화 현상의 일종이다.

계속해서 피실험자들과 중국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 중 파악할 수 있었던 중간문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예문(2) 연계하자 → 연락하자
방동(房東) → 집주인

예문(3) *해동(害動)

예문(4) *call 不 call?

예문(2)에서 ‘연계하자’, ‘방동’은 한국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말이다. 중국어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거나 다른 의도로 사용한다. 그러나 피실험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던 말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예문(3)처럼 한국어나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피실험자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해동(害動)’은 피실험자가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실험자는 적당한 한국어가 생각나지 않자 해충(害蟲)이란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중간문화현상은 한국어도 중국어도 아닌 영어를 발화할 때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문(4)처럼 “call? no call?”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각이나 의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실험자들은 ‘no’를 ‘不’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문장이 어색하다고 느낀 피실험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타인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발화실수를 자각하였다.

이처럼 피실험자들은 모국어를 사용할 때도 단어나 말을 중국어나 한자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 역시 중간문화 특징 중 하나이다.

(2) 중국문화 이해와 수용정도

피실험자들은 현재 중국현지에서 직접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근거를 통해 중국문화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관습, 학습,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생성된 느낌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피실험자들이 중국문화에 대해 적은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큰 나라 주인의식, 큰 것, 자부심이 강함, 거대함, 웅장함, 국토가 넓다,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하다.”
- “자국 문화·문물에 대한 자부심, 문물을 잘 보존되어 있음, 자국 문화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함, 문화유적이 많음”
- “유구한 역사, 훌륭한 역사, 유구한 역사, 반만년의 역사”
- “다양하고 복잡함, 56개 민족, 화려하고 다양, 다양한 민족이 공존”
- “유교사상, 동양문화”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
- “여유로움, 낙천적”
- “관계(關係), 인맥중시”

상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유산(특히 명승지)을 중국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만만디, 관계 중시 등 행동에 관한 것 등 크게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피실험자들은 소수민족, 광대한 영토, 오래된 역사(단순한 시간적 개념), 중화사상 등 일반 상식 수준에서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자신의 경험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문화의 본질과 그에 따른 가치관, 관념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많지 않았으며 단지 국한된 개인적인 경험과 들리는 소문, 자주 접하는 주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 등 간접 경험이 혼합되어 중국문화에 대한 관념, 사고방식 등을 과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타문화에 대한 판단이 과장되고 그 근거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사회로부터 학습된 사회적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화과정 속에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이미 형성된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습자가 타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별다른 생각이나 근거 없이 관습에 따라 타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근거 없는 판단 및 느낌과 신념을 갖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학습한 결과이며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그들 스스로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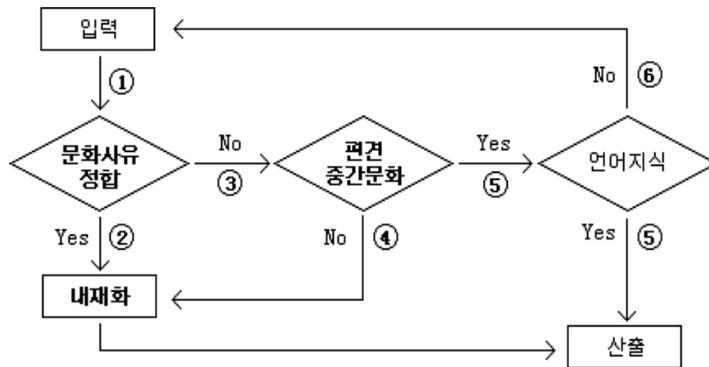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편견 발생 빈도 역시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신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합리화된다. 이렇게 형성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타문화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타문화사유와 모국어 문화사유 간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실험자들이 중국문화에 대해 과일반화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받은 학습과 미디어의 영향, 언어지식 전달과 응용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중국어지식 획득에 치중되거나, 단편적인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교육 등 현재의 사회적 환경과 중국어교육 환경의 영향이 크다.

2) 중국문화 내재화과정

중국어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어의 언어적인 부분과 더불어 그에 따른 문화사유를 내재화하여 두 문화사유가 함께 공존하고 공유되고 있음을 뜻한다. 대체적으로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표층적 문화요소(언어지식)와 심층적 문화요소(문화사유)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성인의 경우 언어지식은 비교적 쉽게 획득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상기한 심리적 경향으로 인해 타문화사

유를 수용하는데 방해가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문화 내재화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중국문화 내재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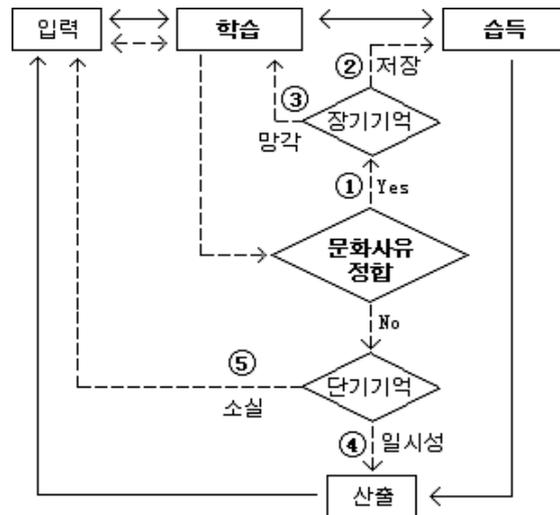
중국문화와 관련된 정보가 입력되면 학습자는 제일 먼저 기존의 모국어 문화사유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여부를 판단(①)한다. 즉 심리적, 문화적 충돌 여부(24)를 판단하게 된다. 기존의 문화사유와 정합이 되면 그 정보는 자연스럽게 내재화(②)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편견, 중간문화 등 심리경향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③)한다.

만약 입력된 정보가 기존의 문화사유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편견과 중간문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새로운 개념으로 내재화(④)된다. 그러나 입력된 정보가 편견, 중간문화현상과 결합되면 완전히 내재화되지 않은 상태로 산출(⑤)되며 의사소통 중 화용실수, 오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학습자가 언어지식과도 상관없는 정보라고 판단하면 그 정보는 소실되고 다시 정보를 입력(⑥)받아야 한다.

24) 본고는 학습자가 중국어를 학습하면서 “그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문화적 충돌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중국어 수준과 학습단계와 상관없이 중국어를 학습하는 모든 학습자에게서 나타난다.

5. 중국어 습득모형

중국어 학습한다는 것은 중국어의 규칙과 형태를 배우고 익히는 의식적인 과정이며 중국어를 논리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표층적 문화요소인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언어지식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그 과정은 수정과 조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심층적 문화요소인 문화사유는 사회적 환경과 그 환경으로 인해 생성된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기대치,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인해 타인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습자의 의지보다는 무의식적이고 관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미 내재된 문화사유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어지식을 획득하고 내재화하는 동적인 과정보다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변화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어지식 학습과정과 중국문화 내재화과정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국어 습득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6〉 중국어 습득모형

가장 이상적인 중국어 습득과정은 <그림6>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입력된 중국어를 학습하고 그 정보가 별다른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득되어져 중국어가 자동 발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어 학습자는 점선의 방향으로 중국어를 학습하고 습득하게 된다.

학습자가 중국어에 내재된 문화사유를 공유(①)하고 그 정보가 장기기억에 저장(②)되어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산출되었을 때 비로소 중국어를 습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활성화되지 않으면 소실될 수 있으며 망각된 정보(③)는 다시 학습과정을 거쳐 습득하게 되는데 처음 학습 때보다는 어렵지 않게 회복되고 활성화된다. 만일 문화사유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의사소통(④)을 위해 활용되고 그 정보가 완전히 소실(⑤)되면 입력단계인 처음부터 다시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언어로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타문화요소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동일하게 중국어의 언어지식을 익히고 중국적 문화사유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중국어를 완전히 습득하였다는 것은 중국어지식과 더불어 중국적 문화사유의 수용을 통해 보다 완전한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문화적 관념이나 사유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감소시켜 언어습관과 표현방식에서 중국인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6. 결론

학습자가 타문화를 접할 때 심리적으로 머뭇거리거나 동요하거나 위축되거나 움츠러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새로운 요구나 가치관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면 심리적 부적응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모국어 문화사유와 사회적 관습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장애요소가 타문화사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중간문화로 인해 일반적이지 않은 중국어를 사용한다거나 사회적, 교육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경향이 중국문화 내재

화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등이다. 그래서 학습자는 중국문화를 직접 접하기 전 소문이나 관습에 따라 중국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거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편견 때문에 학습자의 관념이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아서 비록 학습자는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고도 그 문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표층적 문화요소인 중국어 지식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지만 심층적 문화요소는 온전히 수용하지 못해 완전한 습득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중국어도 학습과 습득이 서로 독립되지 않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순환되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어 지식이 학습자의 장기기억에 저장되고 타문화사유가 내재화되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생성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관심과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参考文献》

- J. Abutalebi, S. F. Cappa & D. Perani, 「The bilingual brain as revealed by functional neuroimaging」,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Vol. 4, 2001:179-190.
- R. Ellis,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M. Ennaji, 『Multilingualism, Cultural Identity, and Education in Morocco』, New York: Springer, 2005:20.
- S. Gass, Integrating Research Areas: A Framework for Second Language Studies , 『Applied Linguistics』, Vol. 9, No. 2, 1988:198-217.
- P. Graf & D. L. Schachter,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for new associations in normal and amnesic subjects ,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Vol. 11, No. 3, 1985.
- S. D. Krashe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nline, 1981.
- G. Libben & O. Lindner, 「Second Cultur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aux Amis?」,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n Fremdsprachenunterricht』, 1996.
- Miyashita, Y. Cognitive Memory: Cellular and Network Machineries and Their Top-Down Control』, 『Science magazine』, Vol. 306, Oct., 2004.
- P. Robinson, Attention, Memory, and the "Noticing" Hypothesis』, 『Language Learning』, Vol. 45, No. 2, 1995:283-331.

- R. W. Schmidt,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Vol. 11, No. 2, 1990:206-226.
- P. Skehan, 『A Cognitive Approach to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E. Tulving, How Many Memory Systems Are There, 『American Psychologist』, Vol. 40, No. 4, 1985:385-398.
- 桂时春, 《新编心理语言学》,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1:2.
- 刘润清, 《西方语言学流派》, 北京: 外语教育与研究出版社, 1998:180-182.
- 潘玉莎, <任碧莲小说中的第二文化习得模式>, 武汉大学硕士学位论文, 2005.
- 王建勤, <跨文化研究的新维度-学习者的中介文化行为系统>, 《世界汉语教学》, 第3期, 1995.
- 王苏, 汪安圣, 《认知心理学》,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3:137-139.
- 邹为诚, 《语言输入的机会条件》, 外语界, 2000.
-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中文提要》

为了提出汉语习得模型, 本论文主要从两个方面进行探讨: 一是, 在汉语学习过程中认知活动的作用; 二是, 母语思维对汉语学习者的影响和中介文化。我们从中得到一些结论: 第一, 学习汉语, 不仅是一种语言活动过程, 也是一种思维活动过程。於是要掌握好汉语, 学习者必须理解其内涵的文化思维; 第二, 学习者在学习汉语的过程中, 既会容易受到第一语言的冲突干扰, 也容易受到已有的文化思维的影响; 第三, 典型的偏见源于信息的错误传播, 这种错误传播通常导致误解, 从而使交际失败。如果这种信息的错误传播得不到有效纠正, 它很可能引发实际交际中的心理冲突, 并造成汉语习得的障碍。

关键词: 文化思维 汉语习得模型 汉语学习过程 跨文化教育 内部因素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